

### 새누리 친박계 “유승민 바람, 큰 반향 없을 것”

새누리당 친박계는 28일 대구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 무소속 연대에 대해 “단기적, 일시적인 우려”라고 일축했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바람이) 공천할 때는 줘 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유 의원 지역(대구) 중심으로 그런 기운이 싹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선거가 가면 갈수록 유 의원이 무슨 파괴력을 갖겠냐”며 “무소속 연대를 만들기 어려운 게, 본인이 이미 어떤 형태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당에 대해 공격하기도 그렇고 무소속 연대를 만들 명분도 없다”며 “나머지(비박계 탈당자)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에 동맹의식이나 동류의식을 보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군에 전락공천된 진박 후보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일각에서 무소속 바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무소속 연대 바람이 일려고 하면 그 중심점이 확실해서 그걸 뺏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무소속 연대는 지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경북 지역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일꾼인가가 지역주민들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박 무소속 연대를 평가절하했다. /특별취재반

### 더민주 남임순 광역기초의원 24명, 박희승 지지

더불어민주당 남임순정임실지역 광역기초의원 24명은 28일 같은 당 박희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동부권에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후보가 늦게 합류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임순순창 선거구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8대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 더민주 익산지역 출마자들 “희망익산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익산지역 출마자 합동기자회견을 익산시 시청 상황실에서 28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이춘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후보, 강광민 익산시장 후보 및 최영규 도의원 후보 등과 함께 지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한 출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60년의 뿌리 깊은 전통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 10년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정당이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익산시장, 도의원 후보들은 민주당의 뿌리라는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총선승리, 익산시장 재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 승리로 익산 발전을 책임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당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민여러분들에게 많은 체책을 받았으나, 그 체책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익산시민과 시민들을 위해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의회와 도의회 그리고 중앙정치의 힘을 합쳐야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채택할 해주시며, 익산발전과 2017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후보를 선택해 달라. 우리 후보들은 더 협력하여 더 나은 익산시를 만들어 가겠다. 힘을 모아 익산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익산 더불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국민의당 익산지역 후보들 “새로운 희망 드리겠다”

국민의 당, 익산지역 후보는 최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합동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합동기자회견 참석자는 조매숙 전 의원, 이현수 전 익산시장, 정현을 전 행정부지사 및 박종열 전 비서실장과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들은 “국민의 당 후보 경선에 보내주시 익산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신 예비후보님들께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4.13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힘차게 손잡고 다시 전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호남지역은 전통적으로 제 1야당의 지역적 기반으로 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데 큰 공헌을 해주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배려 없이 홀대와 차별을 받아왔고, 또한 오랜 기간 제 1야당에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보내 주었지만 호남은 당내에서도 변방으로 내몰렸다”며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통하여 익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익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고 잘사는 익산,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본격 총선체제 돌입

### 전북도 현안사업에 중점

### 새만금·탄소·금융산업

### 농생명 등은 공통으로

### 복지분야에서 차별점 뒤

4·13 선거가 본격 총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전북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공약은 전북도의 핵심 도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당 공약은 현안사업과 경제, 교육 등으로 무게 중심을 분산시킨 모습이다.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은 새만금 사업, 탄소 산업, 농생명산업, 금융산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새만금의 경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속도로부터 비롯된 지역사회 반감이 고려돼 조기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탄소 산업은 메가탄소밸리 구축에 대해서는 공통 공약으로 세우고 있으며 농생명 분야는 종자산업부터 식품산업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기업본부 전북 이전 및

# 여야 3당 전북공약 구체화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 (주요 3당 전북지역 세부 핵심 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지원</li> <li>▲전북 경제 산실 탄소산업 육성</li> <li>▲500조 금융융합 금융타운 조성</li> <li>▲“농도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li> <li>▲전북권 보존 요양원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0조 금융도시 전북</li> <li>▲21세기 신소재산업 중심 전북</li> <li>▲농업이 행복한, 먹거리가 즐거운 한반도 부엌 전북</li> <li>▲문화 실�크로드 9000</li> <li>▲SOC 조기구축으로 새만금 3.0 시대 실현</li> <li>▲사람 중심 복지 전북</li> <li>▲사회적경제 혁명 전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햇볕정책</li> <li>▲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li> <li>▲새만금개발과 함께하는 발전</li> <li>▲지역 순환경제 통한 농도 전북</li> <li>▲서민주거 햇볕정책</li> <li>▲기금운용본부 전북 완치 이전</li> <li>▲전북 연구개발 특구</li> <li>▲내륙과 서해안을 잇는 광광역 순환철도</li> </ul>

금융타운 조성을 약속했다.

공통 공약이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공약으로는 새만금과 농생명 관련 공약을 뽑을 수 있다. 새만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한·중 경제단지 조성에 무게를 뒀으며 더민주당은 한만·철도 등 SOC 사업에 좀 더 치중한 모습이다. 농생명과 관련된 공약은 새누리당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더민주당은 영세소농, 가족농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농가경영안정대책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당은 로컬푸드 의무화, 농산물 최저가격제 법률제정 등

을 실현 과제로 뽑아 농민 생활 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전북권 보존요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어 보존 대상지를 위한 복지에 나섰고 더민주당은 기초연금 30만원, 노인수당 40만원 상향 및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나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보육 100% 책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의 경우 청년희망주택, 독거어르신 셰어하우스, 서민주거 햇볕 정책 등 주거 안정화 공약이 많은 걸로 알려졌다.



‘더컷유세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민 디자이너, 김광진, 정청태, 장하나 의원, 이동학 전 혁신위원, 비례3번 남영희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컷유세단’ 출범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여야, 선대위 구성 완료... 최우선 공약은 ‘경제’

### 수도권·호남 등 권역별로 운영

### 새누리, ‘5대개혁’에 초점

### 더민주, ‘경제민주화’에 중점

여야가 2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4·13 총선 모드로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선대위의 공통점은 권역별 선대위 체제를 택했다는 점과 경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작은 인력으로 전국을 관리할 수 있는 ‘권역별 선대위’ 행보를 택하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권을,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주선 최고위원 및 김동철 의원과 함께 광주 권역을 담당한다.

전남지역은 동부, 서남부로 나눠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표판전에 나선다. 황주홍 의원이 이에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전북은 정동영 전 의장과 현역 김관영 유성영 의원이 나선다. 인천과 경기지역 역시 지역구 현역인 문병호 의원과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나눠 맡는다. 한편 현역 의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영남권과 비호남권에선 비례대표 안정권 순번을 받아 거품이 자유로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 대표가 포함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택했지만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원톱’으로 내세웠다.

우선 새누리당은 5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서청원 인제대 최고위원, 원우철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천정배 공동대표, 김영환, 이상돈, 신용현, 오세정 위원장 등과 함께 8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렸다.

반면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로 현재까지 10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3당은 모두 권역별 선대위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호남·제주) 등 당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을 권역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민주의 선대위 부위원장이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서울은 전병헌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지난 27일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진영 의원이 이끈다. 경기도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이끈다. 대구는 김종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광주와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 이 각각 맡았다. 전남은 조일근 전 남도일보 편집국장이, 전북은 송현섭 실버위원장이 선대위 부위원장 겸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당도 작은 인력으로 전국을 관리할 수 있는 ‘권역별 선대위’ 행보를 택하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권을,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주선 최고위원 및 김동철 의원과 함께 광주 권역을 담당한다.

전남지역은 동부, 서남부로 나눠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표판전에 나선다. 황주홍 의원이 이에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전북은 정동영 전 의장과 현역 김관영 유성영 의원이 나선다. 인천과 경기지역 역시 지역구 현역인 문병호 의원과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나눠 맡는다.

한편 현역 의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영남권과 비호남권에선 비례대표 안정권 순번을 받아 거품이 자유로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 대표가 포함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택했지만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원톱’으로 내세웠다.

우선 새누리당은 5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서청원 인제대 최고위원, 원우철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천정배 공동대표, 김영환, 이상돈, 신용현, 오세정 위원장 등과 함께 8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렸다.

여야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5대 개혁과 관련 세비 반납 운동까지 펼쳐가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5대 개혁과제 역시 경제와 맞닿아 있는 것들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앙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0 자유화기제) 등이다.

더민주도 총·대선 때마다 반복돼온 해묵은 이슈인 ‘안보’, ‘싸갈논쟁’을 떠나 김종인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경제민주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을 보좌할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서 이적한 진영 의원과 함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 경제브레인을 포진시켜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국민의당도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장에 ‘경제를 전면 배치했다.’

특히 신성장산업 육성과 대기업 이익공유 등 성장과 분배 정책이 차례로 기술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과 케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소기업의 공동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성주 기자

### 김승남 의원, 국민의당 탈당

### “더민주 후보 지원 유세 고려”

국민의당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황주홍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김승남 의원이 28일 탈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공정 경선에 대한 강도가 높았는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탈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당의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경선에서 황주홍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탈당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고려중이다. 그는 “지역에서는 더민주 후보의 지원유세를 한다는 입장으로 지방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로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복당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국민의당 탈당 후 지역 여론들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더민주를 탈당,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다. /이성주 기자

